

알 주 문



통일부 포럼서 남북교류 발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4월 28일 통일부 '상생공영포럼'에서 남북간장 완화와 종교교류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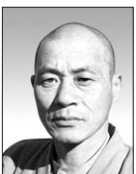
원로코미디어 배상홍 위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폐렴에 걸려 2년 제남 치료비도 못내고 있는 배상홍씨를 위로했다.



월정사 오대산 천년의 숲 걷기대회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23일 9시부터 제6회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따라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복지재단 호스피스 교육생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제4기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02)723-5101



'낙동강 수륙 고혼 천도 방생' 법회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5월 30일 토요일에 제2회 '낙동강 수륙 고혼천도 방생' 대법회와 산시음악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일산노인복지관 검정고시반 개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중입검정고시 준비반을 개설한다. (031)919-8677



불교미래사회학 박원순 초청 포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불교 미래사회연구소 초청으로 5월 2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한다. (02)725-4277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소기념세미나
동국대 불교대학 부학장 김호성 교수는 5월 23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2260-3123



한국위빠사나선원 이전
한국위빠사나선원장 묘원 법사는 6월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청호불교문화원 다동 3층으로 선원을 이전한다. (02)512-5258



캄보디아 승왕 보좌관 임명
前 도선사 교무과장 장연수(50)씨는 캄보디아 사상 최초로 외국인 승왕 보좌관에 임명됐다. 2006년 캄보디아 은장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서산 대사 등 의승 국가적 제향 마땅”

서산 대사 선양사업 계획 밝힌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서산 대사를 비롯해 호국에 앞장섰던 5000여 순국 무명 의승의 제향은 국가적으로 거행돼야 마땅합니다.”

한국불교의 중심도량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사진)은 5월 12일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서산 대사 선양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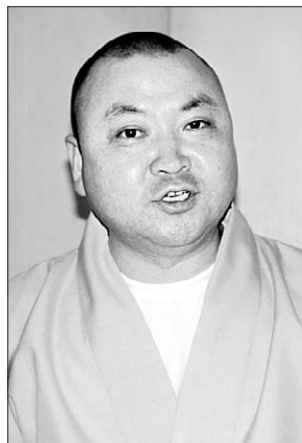
해남 대흥사는 서산 대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5월 22일 대흥사 일원에서 제489주기 서산대제 및 학술 공청회와 제15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흥사는 서산 대사의 업적을 조명해, 호국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매년 문화행사로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열리는 서산대제는 '서산 대사의 제례를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범각 스님의 원력에 따라 '서산대제는 국가적 제향으로 봉행돼야 한다'를 주제로 학술공청회가 준비됐다.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열린 나라사랑글쓰기 대회도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전국대회로 격상시켰다. 학술공청회에는 주제발표 '서산의 승군활동과 조선 후기 추념사업(황인규 동국대 교수)'과 '서산대제의 국가적 제향으로의 전승 문제(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최연식 목포대 교수, 박희승 조계종 기획실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공청회에는 정조 등 임금

이 내린 사액제문(賜額祭文)과 대제 의식 순서를 기록한 표충사 향례흥기(表忠寺享禮笏記)가 최초로 공개된다.

스님은 “서산 대사가 주장자 대신 칼을 쥐고 전쟁터에 나선 것은 부모, 스승을 비롯한 일반 백성(시주)들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면서 “서산 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각 스님은 “조선시대에 표충사에서 봉행하던 제향에는 왕이 직접 제문을 지어 보낼 정도로 왕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서 “서산 대사와 함께 동시대에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의 제향이 전국 70여 곳에서 열



리는 것과 비교해봐도 서산 대사의 제향 규모나 위상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3-24일 대흥사 특별무대에서는 전국의 50여 개 단체, 5000여 차인이 참석하는 제2회 대한민국차인대회 및 제18회 초의문화제가 열린다. (061)534-5502 조동섭 기자

“현대적인 복원 이제부터 시작”

전통 탐비 장엄양식 복원한 김경호 회장

전통 탐비(塔碑: 부도와 함께 세워지는 비석) 장엄양식이 사경(寫經) 전문가에 의해 800년만에 현대적으로 복원됐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47·사진) 회장은 최근 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에서 열반한 초안(1926-1998) 선사 탐비 복원작업을 완료했다. 김 회장은 비문에 들어갈 글과 문양을 사경으로 복원했으며, 남은 일은 석공이 그대로 돌에 옮기기로 하면 된다.

현존하는 전통 탐비 가운데 백미는 1085년에 세워진 ‘법천사 지광 국사 현묘탐비’에서 볼 수 있다. 비신의 테두리와 윗부분에 극락세계를 상징한 그림과 아름다운 무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고려 말을 거치면서 상징은 도식화됐고 1150년대 이후에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경호 회장은 “불교가 융성했던 옛날 국사나 왕사 등의 탐비는 지금처럼 비신(碑身: 비석의 몸체)에 행장을 기록한 글만 새겨진 게 아니다”면서 “800여 년

만에 전통 양식을 되살렸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제부터 현대적인 복원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번에 김 회장이 시경한 탐비는 옛날 양식을 살렸을 뿐 아니라 <아미타경>에 표현된 극락세계를 묘사했다. 전통 비신에서 다뤄지지 않은 악기와 보수, 꽃비 등을 보완하고 가름빈가 도상과 불화의 위치 등을 재정립했다. 특히 인공위성, 유람선, 케이블카, 스포츠카, 노트북, 아파트, 휴대전화, 폭죽 등 현시대의 상징물까지 반영했다.

김 회장은 “조상들의 뛰어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이 시대 명품 비석의 전형 양식을 수립코자 했다”면서 “이후 건립될 선사, 율사, 강백 탐비의 전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5월 환우 한기용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5월의 환우’로 뇌내출혈로 사지가 마비된 한기용(50·남)씨를 선정했다.

한씨는 고물상 한전에 마련된 3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학진학을 앞둔 두 아들과 살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피땀을 흘리며 해왔다.

고물을 모아 근근이 생활을 연명하던 2008년 여름, 한씨는 갑자기 뇌내출혈로 쓰러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한씨는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로 아직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만도 1200만원.

한씨는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마비증세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구강과 인두 근육에 전기 자극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고 있으며, 관절 운

동 및 스트레칭으로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씨의 두 아들은 7년 전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실히 자라났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 아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고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씨가 다시 일어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02)734-8050 후원회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정우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5000만원 전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5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 사랑 지원, 총무원장에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전달금을 비롯해 약4억1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봉은사, 중앙승가대에 상반기 장학금 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은 5월 14일 중앙승가대에서 2009년 상반기 장학금 6870만원을 전달했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 매년 1억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조동섭 기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한라산 등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정념)는 5월 4-6일 한라산 등반 모임을 가졌다.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승가대 동문들이 단합된 도움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동섭 기자

‘동성 스님 선화 표현전’ 뉴욕서 열려



5월 10일 뉴욕 플라자센터에서 ‘동성 스님 동굴과 빛 선화 표현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동부승가회 회장 도법 스님, 뉴욕불교사원연합회 장원영 스님 등 미동부지역 스님 5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섭 기자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경로잔치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제37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5월 7일 경로잔치를 봉행했다. 기가산서구청장, 대한노인회 관령기 자회장, 이재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400여 어르신이 참석했다. 해철 총정자시장

제 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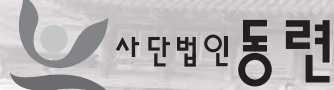
- 일 시: 불기 2553년 6월 6일(토) 14:00 ~ 7일(일) 13:30 (1박 2일)
장 소: 속리산 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 / 예상인원: 600명
참가비: 구분 미리접수 당일접수 학인 스님, 포교사 등 제주도, 군종병 해외 거주자
회비(원) 60,000 70,000 40,000 30,000 무료

강의내용

- 강의 1 신나는 율동
강의 2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강의 3 나누는 기쁨
강의 4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1
A반 - 경력 4~5년 이상 (분반수업)
B반 - 경력 2~3년 이하
강의 5 모닥불 놀이와 촛불발원
강의 6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주의집중게임

- 강의 7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2
마음을 나누는 조별프로그램
1. 세줄다리기
2. 오자미던지기
3. 간출담기
4. 조별 박물북
불교학교 프로그램
5. 요요꾸미기-벌물물리기
6. 핀 브로치 만들기-사랑나누기
7. 부채꾸미기-바람, 공기나누기
8. 대장경 인경-진리나누기
9. 풍경만들기-행복한 소리나누기

- 수행 프로그램
10. 자비명상
11. 부모은중경 독경-부모님께 상장스끼
30분 강의
12. 자연을 나뉘요
강의 8 친불가 율동



WWW.DONGRYUN.NET

문의 (051)864-4569~70
FA X(051)8 6 4 - 4 6 6 5

낙태.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제

아가야! 미안하다...

10,800원의 행복 (참화와 가벼움)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중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려고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초중교적 위령제 봉행

- 대 상: 낙태·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행 식: 49재 천도의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입재\_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2009년 6월 24일
신 청: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벽운사 금강산건봉사포교원 www.bwjisan.com